

#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핵투하계획

李 相 昊\*

1. 서 론
2.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핵정책
3.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핵무기 투하계획(1950. 6~9)
4. 중국군의 참전과 핵무기 투하계획(1950. 10~1951. 4)
5. 결 론

## 1. 서 론

앨런 소칼(Alan Sokal)은 양자중력(Quantum Gravity)과 같은 첨단 과학이론이 해방적인 포스트모던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긴 논문을 한 인문학 잡지에 투고했던 뉴욕 대학의 수리물리학 교수였다. 그는 과학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주장한 몇 안 되는 과학자 중 한명이었다.

논문이 출판되던 날 소칼은 한 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논문이 아무 의미 없는 '날조'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특히 '과

학문화학'을 하는 일군의 인문학자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무지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엉터리 논문을 잡지에 투고했고, 이것이 출판됐다는 사실은 자신의 가정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sup>1)</sup>

위의 글은 몇 해 전 '지적사기'라는 저서를 통해 학문영역의 과도한 이론화 작업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용어와 이론의 과도한 오용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시기적인 불일치와 의도적인 오독(intentional misreading)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개념과 이론화 작업은 신중한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이론화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특수한 사항을 일반화시키려는 것 역시 또 다른 '지적사기'는 아닌지 생각한다.

한국전쟁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맥아더의 핵투하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 도상계획의 하나인 원폭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자료적 근거도 없이 쉽게 재단되어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종의 지적사기인 셈이다. 강정구는 자신의 저서에서 맥아더에 대한 평가를 '전쟁 미치광이', '한반도 분단의 집달리', '민간인학살 책임자', '원자탄 26개로 한반도 종말을 기도한 사람'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가며 비난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내용을 접하며 느끼게 되는 감정은 내용의 진위를 차치하고라도 허탈함과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료적 근거도 없이 논의의 전개를 감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기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그 가운데 한국전쟁과 핵무기 투하계획에 관한 연구는 로저 딩맨(Roger Dingman)과 김상배,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및 아카기 칸지(赤木完爾)의 선구적 논문에 의해 자세히 검토되었다.<sup>3)</sup> 대부분의 연구는 모두

1) 앨런 소칼·장 브리크몽, 이희재 옮김, 『지적사기』(서울: 민음사, 2000), 15-35쪽.

2)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서울: 역사비평사, 1996), 216쪽; 『강정구 교수의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서울: 통일뉴스, 2004), 82-96쪽.

3) Roger Dingman,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3(Winter, 1988-1989); 김상배,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정책에

한국전쟁 전시기를 대상으로 미국의 핵사용 계획을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워싱턴 당국의 정책결정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지사령부인 맥아더사령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 물론 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은 고위당국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 상황에 직면하고 있던 현지사령부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특히 여러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그 적절함을 강구했다. 즉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G-2), 작전참모부(G-3), 작전조사국(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 극동지부 등에서 많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제출된 핵무기 투하 계획에 관한 내용에서는 장소의 부적절함, 효과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에 적당한 전술무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염려하여 재래식 무기 사용으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맥아더사령부 역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맥아더가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통해 한국인 전원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까. 자료를 통한 이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주된 연구 주제이다.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외교학과석사학위논문, 199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Spring thaw for Korea's cold w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8, No. 3, April 1992; 赤木完爾, 「核兵器と朝鮮戦争」, 赤木完爾 編著, 『朝鮮戦争: 休戦50周年の検証・半島の内と外から』(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 2003)[이 논문은 서상문 편저, 『동아시아 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에 「핵무기와 6·25 전쟁」으로 번역·게재되어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특히 ORO의 핵무기 배치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 등의 비밀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핵투하 계획의 입안과정과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시기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맥아더가 해임된 1951년 4월까지를 시기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맥아더기념관 문서철과 미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RG 319 육군참모부 문서, RG 341 공군사령부 문서, RG 349.3. 극동군사령부 문서<sup>4)</sup>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2.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핵정책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2발의 원자폭탄은 대규모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가지며 일본의 전쟁의지를 완전히 소진시켜 전쟁의 종결을 가져왔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에 따른 파괴력에 의해 이는 실제 사용보다는 전쟁에서의 위협이라는 요소로 더욱 크게 작용했다. 아카기 칸지는 “핵무기는 그것이 지닌 막대한 파괴력에 의해서 그때까지 국제관계에서 전쟁이 지니고 있었던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빼앗았다”고 밝히고 있다.<sup>5)</sup> 당맨 역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인사들은 이를 활용하려는 능력보다도 자제라고 하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고 결론지었다.<sup>6)</sup>

물론 핵무기 보유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인 적국에게 심리적 불안을 가져

4) 이 문서철은 아라 다카시(荒 敬)에 의해 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荒 敬 編集, 『朝鮮戦争と原爆投下計画-米極東軍トップ・シークレット資料-』(東京: 現代史料出版, 2000).

5) 赤木完爾, 위의 글, 353-354쪽.

6) Roger Dingman, *op. cit.*, p. 91.

다주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었다. 미·소 냉전이 가시화되던 1940년대 후반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우위를 통해 장차 벌어질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소전쟁계획은 한국전쟁 발발 시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1946년 3월부터 착수된 핀처(PINCHER)계획, 1948년의 브로일러(BROILER)계획(1948년 3월 완성) 1949년의 오프테클(OFFTACKLE)계획 등이 존재했다. 핀처 계획에서는 20~30발로 20개 도시를 목표로 하고, 브로일러 계획에서는 34발로 24개의 도시를, 1949년의 오프테클계획에서는 104개의 도시에 대해서 220발과 함께 재공격용 핵무기 72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되었다.<sup>7)</sup>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지 긴급한 상황에 따른 도상(圖上)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트루만 정권 당시,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핵무기의 가치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 미 군부에서도 재래식 군비를 중시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고, 또한 새로운 무기의 역할과 외교정책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다. 아카기는 이러한 핵무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핵정책과 전략은 오히려 제대로 구사되지 못하는 대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핵무기의 강력한 파괴력 때문에 소유하는 그 자체가 자기억제를 강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sup>8)</sup>

따라서 실제 소련과의 적대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는 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를린사건'이었다. 베를린 봉쇄로 인한 미국의 공수작전이 진행되던 1948~1949년, 미국은 소련에 대한 공갈정책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베를린 위기가 장기화하자 60대의 B-29 폭격기를 영국에 배치했다.<sup>9)</sup> 베를린 봉쇄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핵우위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두고 미국의 정치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독점적 핵지위에서 이러한 핵위

7) 김상배, 앞의 글, 20-24쪽; 赤木完爾, 앞의 글, 364쪽.

8) 赤木完爾, 위의 글, 355쪽.

9) 김상배, 앞의 글, 25쪽.

협이 장래의 위기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sup>10)</sup>

하지만 미국의 핵우위 시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감하게 되었다. 1949년 소련이 핵 실험에 성공하고 공식적인 핵경쟁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소련의 핵위협에 대해 군비경쟁으로 대응해야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1,200만에 달하는 미군의 소집해제를 통해 전력이나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소련에 필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급박한 군비증강이 필요하게 되었다.<sup>11)</sup> 만일 소련이 서유럽으로 침공한다면 전투 지역에서 우방국의 군대와 접전이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이 시기에 대소전쟁계획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바로 NSC-68이었다.<sup>12)</sup> 이 보고서에서는 소련 등의 국가가 대규모 살상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파멸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력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핵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련의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평가했다. 소련은 세계 지배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육·해·공군 및 원자력조사위원회 그리고 CIA의 판단으로는 소련이 다음과 같이 핵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sup>13)</sup>

10) Roger Dingman, *op. cit.*, pp. 51-52.

11)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 III: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5), p. 77.

12) "A Report to the President Pursuant to the President's Directive of January 31, 1950"(1950. 4. 7), *FRUS*, 1950, Vol. I: National Security Affairs: Foreign Economy Policy (Washington: USGPO, 1977), pp. 235-292.

13) *Ibid.*

&lt;표 1&gt; 소련의 핵무장 능력

|          |        |
|----------|--------|
| 1950년 중반 | 10~20  |
| 1951년 중반 | 25~45  |
| 1952년 중반 | 45~90  |
| 1953년 중반 | 70~135 |
| 1954년 중반 | 200    |

출전: "A Report to the President Pursuant to the President's Directive of January 31, 1950"(1950. 4. 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1950, Vol. I: National Security Affairs: Foreign Economy Policy(Washington: USGPO, 1977), p. 251.

소련의 이러한 핵무장 능력 외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200개의 폭탄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 즉 1954년에 만일 소련 보유 핵무기 가운데 100개 정도가 미국의 도시에 떨어진다면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판단했다. 더욱이 핵폭탄에 이은 소련의 수소폭탄 개발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 1954년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격 능력으로 만일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목표달성을 위해 육군·해군 및 공군력의 대규모 증강과 방공 및 민방위 계획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대소전쟁준비 계획안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마련되던 시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 3.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핵무기 투하계획 (1950. 6~9)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워싱턴 당국은 이 전쟁의 배후에 소련의 개입이 있지 않는가를 예의주시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 소식은 무초를 통해 미 국무부에 알려졌다.<sup>14)</sup> 한국전쟁의 개전 보고에 대한 육군부의 최초 반응은 북한의 남침이 소련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전문을 극동군사령부에 발송했다.<sup>15)</sup> 이 전문에서 육군부는 북한 군에 중국군, 즉 이전의 만주부대가 소속되어 있는지, 북한 해군 병사들의 국적문제, 그리고 소련군사고문단이 38선 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러한 남한공격이 성공한다면 소련은 유고슬라비아와 인도차이나에서도 같은 방식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남침을 소련에 의한 공산화의 일환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의 정확한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결정할 수 없었다. 미국은 설사 실제 현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배후의 침략자가 소련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한국 사태에 관해서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소련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sup>16)</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열린 6월 25일 블레어하우스의 대책회의에서 극동주

14) "Muccio to Secretary of State"(1950. 6. 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I』(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270쪽.

15) "DA to CINCFE"(1950. 6. 27) MA, RG 6, Box 9, General Order, January 1951, Folder 4, Korea No. 1 File: June-October 1950.

16)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 98.

둔 소련공군력에 대한 트루만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참모총장은 상하이에 기지를 두고 있는 소련제트기에 대해 보고하며 “소련공군기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경우 원자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대답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sup>17)</sup> 이후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 당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여러 번 시도하게 된다.

당맨은 한국전쟁 초기 1년간 미국 내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4번 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950년 7월이고, 세 번째는 중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했던 11월 말이며, 마지막은 가장 심각했던 상황으로 1951년 4월이라는 것이다.<sup>18)</sup> 한편 김상배는 한국전쟁에서 핵사용에 대한 문제가 다섯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는데, 1950년 6월말과 7월초, 1950년 7월말, 중국의 참전 직후인 11월 30일, 그리고 1953년 5월말에 이르러서는 ‘만일 한국에서의 사태가 악화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확대한다는 데에 미국 수뇌진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평가했다.<sup>19)</sup> 두 연구자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던 시기를 6~7월인 전쟁 초기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카기 칸지는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최초로 심각하게 검토한 것은 중국군 참전으로 유엔군이 철수했던 12월, 즉 1950년부터 1951년에 걸친 겨울이라고 주장했다.<sup>20)</sup>

어쨌든,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북한의 전쟁 배후에 소련이

1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1950. 6. 25), *FRUS*, 1950, Vol. 7, Korea, pp. 159-161.

18) Roger Dingman, *op. cit.*, p. 55.

19) 김상배, 앞의 글, 153-154쪽.

20) 赤木完爾, 앞의 글, 366-367쪽. 그러나 아카기 칸지의 주장에는 사료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밝혀지듯 미국의 핵무기 사용계획은 개전 직후부터 고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료로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입되어 있음을 의심하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다.

우선 당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핵전쟁을 개시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에서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미국·영국·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세히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엄격한 보안조치로 인해 군부의 계획담당자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1)</sup>

<표 2>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미·소·영 3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미국·소련·영국의 핵무기 저장량 비교(1945~1953)<sup>22)</sup>

|      | 미 국   | 소 련 | 영 국 |
|------|-------|-----|-----|
| 1945 | 6     | -   | -   |
| 1946 | 11    | -   | -   |
| 1947 | 32    | -   | -   |
| 1948 | 110   | -   | -   |
| 1949 | 235   | 1   | -   |
| 1950 | 369   | 5   | -   |
| 1951 | 640   | 25  | -   |
| 1952 | 1,005 | 50  | -   |
| 1953 | 1,436 | 120 | 1   |

출전 :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Global nuclear stockpiles, 1945-2006”,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2(Jul/Aug, 2006), pp. 64-66에서 축약 인용.

21) 赤木完爾, 위의 글, 364쪽.

22) 아카기 칸지의 논문에는 1994년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06년도 논문에 의하면 1994년 논문의 수치와 달리 최근에 밝혀진 숫자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2006년도 논문을 인용하여 표를 작성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미국은 약 4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sup>23)</sup> 이 숫자는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서유럽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sup>24)</sup>

그렇다면 한국전쟁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계획되었을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최초의 원자탄 사용에 대한 구상은 7월초 미군의 개입 이후 첫 전투인 스미스특임 대대의 오산전투 패배 직후부터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육군부와 공군부가 작성한 문서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군부 산하 작전참모부(G-3)는 1950년 7월 단계에서 이미 한국에서의 원자폭탄 사용을 검토했다.<sup>25)</sup> 작전참모부(G-3)는 7월 7일 정보참모부(G-2)에 한반도에서의 원폭 투하에 따른 세계와 소련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sup>26)</sup> 이 문서에서 작전참모부는 a.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철수하도록 하고, b. a항이 성공한다면 북한군을 38선 이북에 잔류시키도록 하며, c. 유엔군의 북한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목표 하에, 이에 대한 세계 여론을 평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보참모부는 7월 13일의 회답에서, a. 한국에서의 핵사용은 서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중근동, 그리고 극동의 친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b. 정치적이고 선전적 차원에서 소련을 유리하게 할 것이며, c. 소련 군부의 반응이 어떨지는 정보차원에서 확인할 수 없고, d. 절대무기로 평가

23) 물론 표에 의하면 1950년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369개이다. 하지만 이것이 1950년 말 인지 아니면 1950년 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상배에 의하면 미국은 대략 2개월에 100여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추정해 한국전쟁 개전 당시인 6월경에는 약 400여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4) 김상배, 앞의 글, ii쪽.

25) 荒 敬 編集, 앞의 책, X쪽.

26) "Utilization of Atomic Bombardment to Assist in Accomplishment of the U. S. Objectives in South Korea"(1950. 7. 7),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eneral Decimal File 1950-1951, 091. Korea, TS(Section II), Entry 97, Box 34.

받고 있는 핵무기는 확실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핵무기 사용에 반대했다.<sup>27)</sup>

특히 서유럽의 경우 미국이 유엔의 경찰행동(Police Action)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또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소련의 서유럽에 대한 직접 침공과 유럽의 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아 각국의 경우 핵무기 사용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 올 수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백인종 대 황인종'의 투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그동안 스톡홀름 평화대회에서 핵무기 금지와 핵무기 사용 국가를 범 죄국가로 상정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았다.<sup>28)</sup> 더 나아가 소련에게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 세계 지배를 획책하는 국가'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커밍스에 따르면 7월 9일 맥아더가 '긴급메시지'로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던 리지웨이에게 원폭 사용에 관해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다.<sup>29)</sup> 하지만 이에 대해 커밍스는 본인 스스로는 이 긴급 메시지를 확인하진 못했고 다만 리지웨이의 비망록에서

27) "Intelligence Estimate of World-Wide and Soviet Reaction to the Use of Atomic Bombardment in the Korean Conflict"(1950. 7. 13)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General Decimal File 1950-1951, 091. Korea, TS(Section II), Entry 97, Box 34.

28) 1950년 11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평화옹호대회(International Partisans of Peace Movement)에서 평화옹호운동조직은 핵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관리 실현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3억 명에 달하는 서명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소련의 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위장된 평화공세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세계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The International Partisans of Peace Movement and Its Campaigns after the Korea Attack", OIR Report, No. 5319(1950. 8. 18), 국사편찬위원회, 『미국무부 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보고서 3』, 한국현대사자료집성 55(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 1-36.

29)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 749.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0)</sup> 그런데 앞의 7월 13일자 정보참모부 문서에서 이러한 평가는 극동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바라는 맥아더의 의견에 대한 합참의장의 메시지로 적혀 있는 것<sup>31)</sup>으로 보아, 맥아더가 자기의 관할 하에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맥아더가 초기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1950년 7월 8일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SAC)사령관 르메이(Curtis LeMay)에게 1948년 베를린 봉쇄 당시의 B-29위협을 사실상 되풀이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소련 내 목표를 겨냥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를 영국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물론 핵탄두는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했다.<sup>32)</sup>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 인물은 당시 육군부 작전참모부장 볼테(Charles L. Bolte)<sup>33)</sup>였다. 그는 7월 13일 더 많은 보병사단을 지원해

30) Bruce Cumings, *ibid.*, p. 915 note 133.

31) 1950년 7월 9일 합참은 맥아더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참의장 브래들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79), pp. 185-186.

32) Roger Dingman, *op. cit.*, p. 57.

33) 볼테(Charles L. Bolte, 1895-1989)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1916년 중위로 군대에 입대했다. 2년 후 제1차 세계대전기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상 미엘(St. Mihiel) 전투에 참전하고 뮈즈-아르곤(Meuse-Argonne)공격에 4사단 58연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1919년 대위로 승진하여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포트 베닝에서 1930년 보병진급과정을 이수한 후 1932년 지휘참모대학(Command and General Staff School)을 졸업했다. 볼테는 육군대학(Army War College)을 졸업한 후 1940년까지 그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했다. 1941년 중령이었던 볼테는 육군참관단을 이끌고 런던을 시찰했으며, 1942년 영국의 미군참모장으로 활약했다. 1943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69사단을 지휘했고, 1944년 7월에는 이탈리아에서 34사단 보병사단장을 역임했다. 이탈리아 재직 시 아펜닌(Appenines)산맥 돌파와 볼로냐(Bologna) 함락 등 성공적인 작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작전 성공으로 볼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개의 수훈장과 은성무공훈장, 상이기장 등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볼테는 미 육군참모장, 합참 작전기획국장 등 다양한 직위에서 근무했다. 1952년과 1953년에는 서독에서 미 7군과 유럽주둔 미 육군사령관을 지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미 육군 참모차장을 끝으로 군에서 예편

달라는 맥아더에게 추가적인 사단 지원을 반대하며 '지상전투의 직접적 지원'으로 10 내지 20개의 핵무기 사용을 제안했다.<sup>34)</sup>

원자탄에 대해 공개된 최초의 언급은 7월 21일 미국의 군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미 군부는 원자탄을 사용해도 한반도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sup>35)</sup> 당시에 작전적으로 사용가능한 원자탄은 '공중폭발형(air-burst type)'뿐이었으므로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나 집결된 인원 및 물자를 목표로 하는 이외에는 그 사용이 반드시 효과적일 수는 없었다.<sup>36)</sup>

1950년 7월 27일 공군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했다.<sup>37)</sup> 파서니(Stefan T. Possony)가 작성한 이 비망록에서는 우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핵무기가 효과적인지의 여부가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보급이 북한국경선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핵공격이 북한 도시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죽을 것이고, 이는 한국인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에 대한 전략적 핵공격 역시 북한군이 대규모로 한곳에 집결하여 적절한 공격목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도 10 내지 20개의 핵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한 그는 일반 회사에 대표이사를 지낸 후 사임하여 미 육군 및 해군 클럽의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2월 11일 마운트버논(Mount Vernon) 병원에서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후 알링턴(Arlington) 국립묘지에 묻혔다(<http://www.arlingtoncemetery.net/clbolte.htm>, 2008년 4월 28일 검색).

34) Stanley Weintraub,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p. 252.

35) 《민주신보》 1950년 7월 23일.

36) 김상배, 앞의 글, 42쪽.

37) "The Use of Atomic Weapons in Korea"(1950. 7. 27), NARA,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 S. Air Force (Air Staff),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Headquarters U. S. Air Force, E. 335, Box 906.

따라서 핵무기의 비효율적 사용은 미국에 대한 비난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만일 핵공격이라고 하는 최후의 일격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서방진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핵무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필요할 경우 미국의 결의를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 둘째, 국제연합이 핵무기의 사용을 지지할 때 등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연합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련에 의해 희생양이 되고 있는 북한인 사상자를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는 4개항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1.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3. 대통령은 북한인들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리는 연설을 해야 한다.
4. 대규모 작전을 알리는 선전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4번째 항은 부수적으로 북한의 여성, 청년, 아동들에게 핵무기나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을 부추겨 게릴라 단체를 조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1950년 7월 30일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은 워싱턴 해군 기지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트루만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9 10대를 괄에 배치했다.<sup>38)</sup> 이러한 결정에 대해 덩만은 비록 명백하게 의도를

38) Roger Dingman, *op. cit.*, p. 60. 그러나 이 B-29편대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은 직후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같은 무기의 배치만으로 전쟁 역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워싱턴이 굳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sup>39)</sup> 즉 핵탄두 부분이 그대로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 조립품만을 실은 핵폭격기의 파전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유용성에 초점을 둔 공갈'이나 '억지효과'를 노린 '견제책'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sup>40)</sup>

1950년 8월 2일 공군부의 심리전부대장인 그로버(O. L. Grover) 역시 파서니가 제시한 논리와 비슷한 시각에서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앞의 4항과 같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sup>41)</sup>

1950년 8월과 9월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 8월에는 북한군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미군은 돌파구를 찾고자 모색하던 시기였다. 특히 이때에는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전계획안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현지사령부에서 추진한 핵무기 사용계획안의 중심은 바로 작전조사국(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이었다. 우선 ORO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재능 있는 학자들 대부분은 대학이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미군은 대규모의 연구조사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점 학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들은 인구 및 경제력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었고, 기술 및 학문적 지식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sup>42)</sup>

에 미국으로 귀환했다.

39) Roger Dingman, *ibid.*, p. 65.

40) 김상배, 앞의 글, 45-46쪽.

41) "The Use of Atomic Weapons in Korea"(1950. 8. 2), NARA,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 S. Air Force (Air Staff),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Headquarters U. S. Air Force, E. 335, Box 906.

42) U. 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이러한 취지에서 부시(Vannervar Bush)에 의해 국방조사위원회(Defense Research Committee, NDRC)가 창설되었고, 민간연구기관으로 과학조사개발국(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OSRD)이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과학조사개발국은 폐쇄되었다.<sup>43)</sup>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에서는 민간조직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해군의 작전평가단(Operations Evaluation Group, OEG), 공군의 랜드(RAND)연구소,<sup>44)</sup> 육군의 작전조사국(Operations Research Office) 등이 연구조사기관으로 신설되었다.

해군의 작전평가단은 해군작전연구단(Naval Operations Research Group, ORG)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1945년 11월 1일 창설되었다. 작전평가단에는 25명의 과학자들과 3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공군 역시 육군항공대<sup>45)</sup> 사령관인 아놀드(H. H. Arnold) 장군의 주도로 민간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했다. 1945년 12월 1일 연구개발을 위한 르메이 장군 주도의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이후 정식으로 랜드(RAND)연구소가 창설되었다.<sup>46)</sup>

한편 육군도 1946년 4월 30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의 비망록으로 육군 외부에 민간 조사기구 설립안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맥아우리프(A. C. McAuliffe) 중장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1948년 6월 랜드연구소와 유사한 일반조사국(General Research Office)이 신설되었다. 이 기구는 동년 12월 작전조사국(Operations Research Office)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작전조사국(ORO)은 존스홉

Defense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OTA-BP-ISS-15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1995), p. 13.

43) U.S. Congress, *ibid.*, p. 14.

44) 랜드(RAND)는 연구 및 조사(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이다.

45) 미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육군의 관할 하에 육군항공대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1947년 이후 정식독립부서인 공군으로 성장한다.

46) U. S. Congress, *op. cit.*, p. 15.

킨스(Johns Hopkins) 대학과 계약을 맺고 실제업무에 착수했다.<sup>47)</sup> 작전조사국은 1972년 6월까지 존속했다.<sup>48)</sup>

육군부는 한국전쟁기 이러한 작전조사국을 조직하여 그 부서 일부를 극동군에 파견했다. 따라서 극동군 작전조사국(ORO, FECOM)은 극동군사령부에서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었다.

미국 군부 공인 하에서 극동군사령부가 핵무기 사용연구에 착수했던 것은 1950년 9월 6일에 육군부가 극동군 작전참모부에 보낸 '군사목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라는 전문에 기초했다. 인천상륙작전 전후인 9월 중순에 ORO국장 존슨(Ellis. A. Johnson)<sup>49)</sup>을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극동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이들의 배속이 결정되자 9월 18일 극동군 사령부에서 임무가 확정되었다. 작업을 위해 G-3 산하 ORO가 설치되어 전체를 총괄했지만, 주요 그룹은 제8군 G-3에, 심리전 담당은 극동군 G-2에 배속되었다.<sup>50)</sup> 참고로 ORO의 연구 및 그 우선순위는 극동군사령관이 육군부에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는 육군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sup>51)</sup>

작전조사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2년 동안 현지팀을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해 활동했다.<sup>52)</sup> ORO 국장인 존슨은 4개 팀을 이끌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점차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팀으로 늘어났다. 작전조사국의 연구팀은 한국전쟁에서 근무지원의 평가,<sup>53)</sup> 한국인의 활용방안,<sup>54)</sup>

47) Ron T.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tellectual complex*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 171.

48) U. S. Congress, *op. cit.*, pp. 15-16; W. L. Whitson, "The Growth of the Operations Research Office in the U. S. Army", *Operations Research*, Vol. 8, No. 6(Nov.-Dec., 1960), pp. 809-824.

49) 존슨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Thorton Page, George S. Pettee, William A. Wallace, "Ellis A. Johnson, 1906-1973", *Operations Research*, Vol. 22, No. 6 (Nov.-Dec., 1974), pp. 1141-1155).

50) "Ellis A. Johnson to CINCFE: Far East Command Operations Research Problems" (1950. 9. 18),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51) 荒敬 編集, 앞의 책, IX-X쪽.

52) 荒敬 編集, 위의 책, V쪽.

효율적인 뼈라 작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다.<sup>55)</sup> 연구조사를 위해 작전조사국의 연구자들은 적 후방에 침투하여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sup>56)</sup> 이들의 한국전쟁기 연구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ORO프로젝트는 1에서 8까지였지만, 이 가운데 1은 원폭투하 연구였다. 정식으로 '프로젝트 1 근접지원에 대한 원자폭탄의 전술사용'이다. 프로젝트 1은 1950년 10월에 극동군 참모장(알몬드 중장), 육군참모총장(콜린스 대장)으로부터 승인되었다.<sup>57)</sup>

ORO의 프로젝트는 당초 8개였지만, 제8군 관계 최종보고서는 1. 원폭의 전술사용, 2. 심리전, 3. 근접항공지원, 4. 공산중국군, 5. 지뢰, 6. 적 병참 공격, 7. 후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원폭의 전술사용은 ① 한국에서 원자폭탄의 전술적 사용(ORO-T-1, FEC) ② 중국공산군의 전술에 기초한 점령지역의 표준에 관한 보고서(ORO-S-4, FEC) ③ 원자폭탄의 전술사용(ORO-S-12, EUSAK) ④ 청천강의 핵방어 (ORO-S-2, EUSAK) 등이다.<sup>58)</sup>

ORO의 보고서에 의하면, 핵무기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에 관한 것은 합참이나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것이지만 GHQ가 긴급 사용시의 이점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조사·연구는 육·해·공군이 포함된 전역차원에서의 전략적 문제와 적(소련을 암시)

53) "ORO-T-6, Technical Memorandum, An Evaluation of Service Support in the Korean Campaign", NARA, RG 338, Eighth U.S. Army, 1944-1956, Adjutant General Section, Security-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8th Army, 319.1(ORO) to 319.1(PDS), Box 754.

54) "ORO-R-4, Utilization of Indigenous Manpower in Korea", NARA, RG 338, Eighth U.S. Army, 1944-1956, Adjutant General Section, Security-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8th Army, 319.1(ORO) to 319.1(PDS), Box 754.

55) 다음을 참조, William E. Dougherty,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 (Ba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58), pp. 225-227, 309-314, 612-614, 681-715, 828-843.

56) U. S. Congress, *op. cit.*, pp. 20-21.

57) 荒 敬 編集, 앞의 책, X쪽.

58) 荒 敬 編集, 위의 책, XIV쪽.

이 일본에 대해 보복공격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O의 원폭투하연구는 1950년 9월 18일 CIC, FEC에 보낸 ORO 비망록 프로젝트 1과 극동군참모장의 승인(1950. 9. 18)을 얻고 1950년 10월 28일 육군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sup>59)</sup>

<표 3> 한국전쟁기 ORO의 연구현황

| 연구주제                                       | 연구 번호           | 연구내용                                                                                                |
|--------------------------------------------|-----------------|-----------------------------------------------------------------------------------------------------|
|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Tactical Employment of A-Bomb) | ORO-T-1, FEC    | Tactical Use of Atomic Bomb In Korea                                                                |
|                                            | ORO-S-4, FEC    | Notes On CCF Area Targets Based on CCF Tactics                                                      |
|                                            | ORO-S-12, EUSAK | Atomic Defense of Chongchon                                                                         |
|                                            | ORO-R-2, EUSAK  |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
|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 ORO-T-2, FEC    | Possible Operations Research in FEC Psychological Warfare                                           |
|                                            | ORO-S-3         | Possible Expansion of Psywar Operations                                                             |
|                                            | ORO-S-6, FEC    | Leaflet Dropping in Korea                                                                           |
|                                            | ORO-S-7, FEC    | A Suggested Reorganization of Psywar Operations for the Korean War                                  |
|                                            | ORO-S-8, FEC    | Critical Notes on Foreign Radio Program Addressed to Korea                                          |
|                                            | ORO-T-1, EUSAK  | Radio in Korea                                                                                      |
|                                            | ORO-T-10, EUSAK |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sywar Personnel in Lower Echelons of Eighth Army, 24 Jan.~5 Apr. 51 |
|                                            | ORO-T-11, EUSAK | Immediate Improvement of Theater Level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Far East                        |
|                                            | ORO-T-12, EUSAK | An Evaluation of Psywar Influence on North Korean Troops                                            |
|                                            |                 |                                                                                                     |

59) "Memorandum from Director, ORO(E. A. Johnson) to Chief of Staff, GHQ: Emergency Use of Atomic Bombs in Close support of Ground Forces in Korea" (1950. 11. 29),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 연구주제                                     | 연구 번호           | 연구내용                                                               |
|------------------------------------------|-----------------|--------------------------------------------------------------------|
| 심리전<br>(Psychological Warfare)           | ORO-S-35, EUSAK | Possible Expansion of Tactical Psywar in Korea                     |
|                                          | ORO-S-36, EUSAK | Summary Version of ORO-S-35, EUSAK                                 |
|                                          | ORO-S-40, EUSAK | Civilian Reaction to Imminent Invasion                             |
|                                          | ORO-S-1A, EUSAK | Proposed Use of Airborne Loudspeakers In Korea                     |
|                                          | ORO-S-39        | Influence of Korean Villagers on Enemy Troops                      |
| 근접항공지원<br>(Close Air Support)            | ORO-S-5, FEC    | Use of B-29 Aircraft for Night Tactical Air Close Support          |
|                                          | ORO-T-13, EUSAK |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ir Support Operations in Korea    |
|                                          | ORO-R-3, EUSAK  | Preliminary Evaluation of Close Air Support Operations in Korea    |
| 중국군 전술<br>(CCF Tactics)                  | ORO-S-25, EUSAK | CCF Tactics in the Envelopment of a Column                         |
|                                          | ORO-S-26, EUSAK | CCF in the Attack                                                  |
|                                          | ORO-S-41, EUSAK | Notes on Chinese Company Tactics                                   |
| 지뢰<br>(Land Mine)                        | ORO-S-33, EUSAK | Proposed Use of Land Mine in the Present Phase of the War in Korea |
| 적 병참 공격<br>(Attack of Hostile Logistics) | ORO-S-37, EUSAK | Proposed Method of Attack on NK and CCF Logistics                  |
|                                          | ORO-T-8, EUSAK  | North Korean Logistics and Methods of Accomplishment               |
| 철수<br>(Evacuation)                       | ORO-S-1, FEC    | ORO Special Project SAMPAN                                         |
| 기타                                       | ORO-T-6         | Services Support in Korea                                          |
|                                          | ORO-T-7         | Notes on Infantry Tactics in Korea                                 |
|                                          | ORO-R-4         | Utilization Indigenous Manpower in Korea                           |

출전: "CG,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HQ, EUSAK to CINCFE: Operations Research Activities"(1951. 2. 19),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NARA, RG 338, Eighth U. S. Army, 1944-1956, Adjutant General Section, Security-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8th Army, 319.1(ORO) to 319.1(PDS), Box 754.

#### 4. 중국군의 참전과 핵무기 투하계획 (1950. 10~1951. 4)

1950년 10월 말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에 따른 전세 변화로 낙관적인 상황은 급변했다. 11월 4일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인 니츠(Paul Nitze)는 육군 부 병참부의 원자력 보좌관인 로퍼(Herbert B. Loper) 장군과 핵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한국전쟁에서는 원자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소련의 참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합의했다.<sup>60)</sup> 국무부 극동과의 에머슨(John K. Emmerson) 역시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비망록에서 중국에는 핵무기 목표로서 적당한 대상이 없다는 합동참모본부의 견해에 동의하며, 오히려 핵무기 사용 시의 불리한 반응에 대해 묘사했다. 즉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이를 사용 시 미국의 도덕적 지위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유엔에서 우방국과의 협조관계를 깨뜨릴 것이며, 소련의 선전에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나아가 또 다시 아시아인들에 대해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아시아인들 사이에 분노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았다.<sup>61)</sup>

하지만 1950년 11월 20일 합동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JSSC)가 합참에 보고한 문서 JCS 2173은 한국 전선에서의 핵무기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62)</sup> 합동전략조사위원회는 한국에 핵

60)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Nitze)"(1950. 11. 4), *FRUS*, 1950, Vol. VII, pp. 1041-1042.

61) "Memorandum by the Planning Adviser,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Emmerson)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usk)"(1950. 11. 8), *FRUS*, 1950, Vol. VII, pp. 1098-1100.

62) "Possible Employment of Atomic Bombs in Korea"(JCS 2173, 1950. 11. 20), NARA,

무기 배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즉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새로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력과 물자 집결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은 유엔군이 현재의 방어선을 유지하거나 혹은 만주국경 유역으로 진격하기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 육군부의 작전참모부(G-3)도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다. 11월 후반 작전참모부는 새로운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유엔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탄의 사용이 결정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사용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작전참모부는 중국군이 한반도로 계속 이동하는 경우에 만주 국경의 바로 북쪽에 핵방사능에 의한 띠 모양의 ‘방역선’을 설정하여 한국의 전장(戰場)을 만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능성까지도 상정하고 있었다.<sup>63)</sup>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11월 30일 트루만은 공개적으로 중국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시기 미국은 핵보유량에서 소련의 25발에 비해 450발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sup>64)</sup> 또한 그는 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맥아더에게 부여할 것이며, 따라서 맥아더가 이를 언제·어디서 사용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sup>65)</sup>

하지만 트루만의 발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법률상 대통령만이 원자탄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승인이 주어

져 있지 않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승인이 주어지면 그때 야전사령관은 무기의 전술적인 운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긴급히 해명했다.<sup>66)</sup> 트루만의 발언 가운데 ‘핵무기 사용의 권한이 야전사령관에게 부여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왜냐하면 원자탄 사용의 권한은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기 때문이다.<sup>67)</sup>

12월 1일 맥아더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일 자기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이 주어진다면, 공격 목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둥, 묵덴[센양(瀋陽)의 만주국 명칭],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 우선순위로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지린 등을 거론했다.<sup>68)</sup>

하지만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가 미국을 방문하여 핵무기 사용에 관해 강하게 항의하자 미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합동전략조사위원회는 12월 3일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미군의 크나큰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가 핵무기로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9)</sup>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핵무기를 중국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알리도록 추천했다. 미 군부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필요성에 직면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내의 목표물은 군사적 재앙을 막기 위해 핵무기 공격의 목표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Headquarters U.S. Air Force, E. 335, Box 906.

63) 김상배, 앞의 글, 51-52쪽. 여기서 언급된 방사선 폐기물 지대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방사선 폐기물 지대 논의가 맥아더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러한 주장은 테네시주 하원의원 앨버트 고어(Albert Gore)와 육군부 작전참모부에서도 미리 지적되고 있었다.

64) 荒 敬 編集, 앞의 책, XII쪽.

65) “The President News Conference”(1950. 11. 30),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0*,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 (2008년 4월 28일 검색).

66) 김상배, 앞의 글, 49쪽.

67) 김상배, 위의 글, 55쪽.

68) William T. Y'Blood ed., *The Three Wars of Lieutenant General George E. Stratemeyer-His Korean War Diary*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Pacific, 1999), p. 321.

69) “Use of Atomic Bomb”(JCS 2173/3, 1950. 12. 4), NARA,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Headquarters U.S. Air Force, E. 335, Box 906.

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함흥 지역에 있는 10군단의 안전한 철수가 이루어지자 미 합참과 국방부는 12월 13일 앞에서 언급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합동전략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철폐했다.<sup>70)</sup>

워싱턴에서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사령부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부는 12월 13일 알몬드 참모장에게 긴급시 '전술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19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정식명칭인 '한국에서 원자폭탄의 전술적 사용'(ORO-T-1, FEC, 1950. 12. 22)으로 완성되었다.<sup>71)</sup>

ORO의 연구는 우선 한국에서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들을 열거했다. '핵무기가 소련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핵무기를 미국이 사용하면 소련은 공개적으로 전쟁에 개입할까' 등을 검토하며, 소련의 핵보복 능력으로 인해 특히 일본에서 미국의 취약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핵무기의 배치가 세계전략의 주요 한 부분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자문하고 있었다. 또한 문제점으로 당시에도 연구팀이 미국의 핵보유량이나 생산능력을 모른다고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보취득에 관한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공격 목표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정확한 위치인데 현재의 정보력에 의하면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공격을 위해서는 재래식 공격보다 더욱 자세하고 많은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적군 사상자의 치료와 소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수의 사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의료부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더욱이 여기에는 민간인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폭방어(radiological defense)를 위해서는 유엔군의 조직과 훈련이 핵공격에 대해 완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ORO는 120발의 전술핵무기가 요코다(横田)와 오키나와(沖繩)에 들어와 있고, 표적확정부터 투하까지는 11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72)</sup>

ORO의 연구보고서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부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극동군 작전참모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ORO연구는 평평한 지역에서의 핵무기의 효과를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구릉과 산악지대이다. ORO연구는 현존하는 군정보조직하에 원자폭탄을 배치하는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투하까지는 11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자폭탄의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 수준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피폭방어를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사용하기 전에 극동군 사령부가 충분한 방어 장비와 측정 장비 그리고 이를 수리·보수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sup>73)</sup>

특히 작전참모부와 함께 극공공군사령부는 적의 보복능력, 일본 내 기지의 취약문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ORO 연구에 대한 찬성은 8군사령부와 10군단 등 현지 전투사령부로부터 나타났다. 8군사령부는 '본사령부는 원폭사용이 결정되면, 강제피난을 지원하는 현재의 상당한 열세가 상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 후 합참

70) "Memorandum for General Edwards"(1950. 12. 13), NARA,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 S. Air Force(Air Staff),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Headquarters U. S. Air Force, E. 335, Box 906.

71) 荒 敬 編集, 앞의 책, XII쪽.

72) "Comments on Technical Memorandum ORO-T-1(FEC) 21 Dec. 1950: Tactical Employment of the Atomic Bomb in Korea",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73) "Doyle O. Hickey to Chief of Staff, U. S. Army: Tactical Employment of the Atomic Bomb in Korea"(Undated),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에도 '다수의 8군 장교는 원자폭탄의 전술사용이 실행가능하며 그 효과가 높은 무기라고 판단하므로, 사용이 권고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sup>74)</sup> 대다수의 8군 장교들은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천될만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5)</sup>

하지만 휘하 부대 내에서 원폭사용에 대한 ORO의 연구에 대해 찬반양론이 비등해지자, '극동군총사령관은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육군부에 보내는 초안이 1월 18일 도일 O. 히키에 의해 작성되었고, 1월 23일 맥아더는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에게 '극동군총사령관은 권고의 동의를 유보한다'고 하는 서신을 발송했다.<sup>76)</sup>

날짜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시기 육군부에 보낸 전문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극동군사령관은 핵무기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전술적 목적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유엔의 목적이 현재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사령부는 한국에서 핵무기를 즉각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다. 극동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천한다. 첫째, 비축된 핵무기는 장래 전술적 사용을 위해 극동에 배치한다. 둘째, 극동군사령부의 요청시 핵무기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예비 조치를 고려한다. 셋째, 필요한 참모와 기술팀을 본 사령부에서 조직, 훈련한다.<sup>77)</sup>

74) 荒敬 編集, 앞의 책, XIII-XIV쪽.

75) "G-3, FEC to AG, FEC, Incl.: Army Operational Evaluation Activities in the Far East"(1951. 2. 9),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76) 荒敬 編集, 앞의 책, XIV쪽.

77) "FECOM(Doyale O. Hickey) to The Chief of Staff, US Army: Tactical Employment of the Atomic Bomb in Korea"(Undated), NARA, RG 349, Box 783,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0.

한편 이 당시 극동군사령부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육군부 작전참모부에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육군부 작전참모부는 맥아더와 핵무기 사용을 위한 타격지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맥아더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영국 외무성 자료를 근거로 1950년 12월 9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재량권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12월 24일 26개의 핵무기가 필요한 "보복 목표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sup>78)</sup>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맥아더가 공식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요구한 문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20일 작전기획국장 볼테는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비상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sup>79)</sup> 다음날인 1950년 12월 21일 볼테는 맥아더에게 이 비상계획을 알렸다.<sup>80)</sup>

미 군부는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에 따른 전황변화를 소련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따라서 미 군부 당국에서는 소련의 참전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비상작전 계획인 '셰이크다운'(SHAKEDOWN) 전략을 세웠다. 이는 소련의 극동지역 참전에 대한 보복 전략으로써 미 전략공군에 20개 핵무기의 배치를 잠정적으로 승인한 합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미 합참은 셰이크다운 계획에 입각해 각 부대에 소련과 전면전이 발발할 시 소련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지역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육군부 작전국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르는 목

78)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750; Bruce Cumings, "Spring thaw for Korea's cold w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8, No. 3, April 1992, p. 18. 커밍스의 연구를 인용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김상배, 앞의 글, 57-58쪽; 荒敬 編集, 앞의 책, XIV쪽.

79) Stanley Weintraub, *op. cit.*, p. 256.

80) "C. L. Bolte to D. MacArthur"(1950. 12. 21), MA, RG 9, Box 121, Folder Personal for No. 1.

표 지역을 맥아더에게 선정해 주기를 요청했다.

볼테의 요청에 따라 맥아더는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참전에 대한 보복 공격보다 소련의 전쟁 잠재력을 감소시킬 목적에서 타격지역 목록을 제출했다.<sup>81)</sup> 그는 적어도 21개 지역에 26개의 핵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표 4>에 따르면, 소련 영토가 15개 지역, 중국 영토가 6개 지역 선정되었다. 물론 선정된 중국 영토 가운데 뤄순 및 다롄 지역은 소련의 조차지이므로, 실질적인 중국 지역은 4개 지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하얼빈, 칭다오 지역 역시 소련의 군사고문단이 주둔해 있었으므로 맥아더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전진기지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맥아더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소련의 전략 비축 기지와 통신센터, 잠수함 기지 등을 파괴함으로써 소련의 작전 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았다. 특히 목표 지역의 선정에는 극동군의 전략 목표

<표 4> 핵무기 목표 타격지역

| 타격지역     | 핵무기 수요량 | 타격지역      | 핵무기 수요량 |
|----------|---------|-----------|---------|
| 블라디보스톡   | 2       | 목텐        | 2       |
| 보로실로프    | 1       | 소베스카야 가반  | 1       |
| 하바로스크    | 2       | 하얼빈       | 1       |
| 뤼순항      | 1       | 이르크츠크     | 1       |
| 베이징      | 1       | 치타        | 1       |
| 다롄       | 2       | 울란 우데     | 1       |
| 사할린      | 1       | 페트로파블로프스크 | 1       |
| 콤포몰스크    | 2       | 나호드카      | 1       |
| 블라코프쉬첸스크 | 1       | 칭다오       | 1       |
| 미가일로프카   | 1       | 아르템       | 1       |
| 퀴비셰프카    | 1       |           |         |

81) "CINCFE to DA"(1950. 12. 24), MA, RG 9, Box 121, Folder Personal for No. 1.

조사와 함께 연합번역통신부(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송환자들의 심문에 의거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타격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문서를 통해 판단해 보면, 맥아더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26발의 핵무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육군부 작전참모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아더의 핵무기 사용 주장에 대한 진위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전쟁을 수행하며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중국으로의 확전을 감행했을 때 소련이 참전하게 되어 전쟁이 전면화될 경우, 선택 사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한편 1951년 1월 11일 스튜어트 사이밍톤(Stuart Symington) 국가안보 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트루만에게 권고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중대한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취할 정책과 조치에 관한 권고(NSC-100)'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미국의 국익이 걸린 지역에 소련이 침략하면 즉각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었다.<sup>82)</sup> 하지만 트루만은 애치슨으로 하여금 그 사용 위협으로 소련에게 걱정을 주기는 커녕, '우방국들만 놀라게 하는 정치적 부담'이라고 반박하게 했다.<sup>83)</sup> 또한 이 당시 맥아더는 국제연합군 철수를 위해 핵무기를 전진배치하자는 제안 자체도 고려하기를 거부했다.<sup>84)</sup>

1951년 4월 6일 트루만은 원자무기 완제품을 탑재한 B-29폭격기를 괌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sup>85)</sup> 1951년 4월 7일에 제9중거리폭격비행단(the 9th Medium Bomb Wing)은 핵폭탄을 괌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월

82) 赤木完爾, 앞의 글, 370쪽.

83) Roger Dingman, *op. cit.*, p. 69.

84) Roger Dingman, *ibid.*, p. 68.

85)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Marshall)"(1951. 4. 6), *FRUS*, 1951. Vol. VII: Korean and China, Part 1, p. 309

10일 의회의 주요 의원들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었음을 행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또한 트루만은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결정과 조건부로 맥아더 해임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지지를 얻었다.<sup>86)</sup>

맥아더가 해임되고 난 이후인 4월 말 트루만은 핵장착 가능 폭격기를 태평양으로 증파하는 명령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워싱턴은 맥아더의 후임자인 리지웨이 장군에게 한반도 밖으로부터의 공중 공격에 대해 핵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87)</sup> 여기에 더하여 후임이 된 전 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5월에 38발의 원자폭탄을 새로이 요구했다.<sup>88)</sup> 원자폭탄 투하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리지웨이가 맥아더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 5. 결 론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만일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극동전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소련과의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sup>89)</sup>

당맨은 미국이 한국전쟁 전 시기에 걸쳐 전투 시 사용가능 지역에 핵무기를 하나도 배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워싱턴이 한국에서 핵폭탄을

86) Roger Dingman, *ibid.*, pp. 72-73; 김상배, 앞의 글, 72-73쪽.

87)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Ridgway)"(1951. 4. 28), *FRUS*, 1951. Vol. VII: Korean and China, Part 1, pp. 386-387;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Ridgway)"(1951. 5. 1), *FRUS*, 1951. Vol. VII: Korean and China, Part 1, pp. 394-398. Roger Dingman, *op. cit.*, pp. 75-76.

88) 荒 敬 編集, 앞의 책, XV쪽.

89) 赤木完爾, 앞의 글, 375쪽.

전술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정치가들이 핵무기를 전쟁에서의 정치·외교 관계에 사용하려 했었다는 것이다.<sup>90)</sup>

그렇다면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에서의 핵무기 투하 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맥아더사령부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정보참모부, 작전참모부, 작전조사국, 8군, 10군단 등 각 하위 부대 및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었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도 변화되었다. 따라서 맥아더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때는 핵무기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사용을 거부하고 있었다. 즉 미국정부와의 관계에서 맥아더는 원폭투하의 주창자였지만, 그것은 현지부대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sup>91)</sup>

핵무기 사용에 대한 맥아더의 의도는 중국과의 전면전 내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선회를 요구하는 것이지 핵무기 사용 그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핵무기 사용은 최악의 경우 군부와 맥아더사령부 내 강경파의 최후 수단이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3. 13, 심사수정일 : 2008. 5. 27,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맥아더, 극동군사령부, 작전 조사국, 핵무기의 전문적 사용, 국가안전보장각서68, 볼테, 공중폭발형, 국방조사위원회, 존슨, 세이크다운 작전

90) Roger Dingman, *op. cit.*, p. 89.

91) 荒 敬 編集, 앞의 책, VIII쪽.



&lt;ABSTRACT&gt;

## MacArthur's Command Plan of Dropping Atomic Bomb during the Korean War

Lee, Sang-ho

One of the mistake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is MacArthur's Command's plan of dropping atomic bomb. Fallacy was known to the people without accurate historical evidence. That is to say, MacArthur was blamed as 'Warmonger' whom advocated using the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War.

This essay would correct such the fallacy, utilizing the documents of MacArthur Archives (MA) an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then we would investigate drafting process, debate course, and final decision of MacArthur's Command's plan of dropping atomic bomb during the Korean War.

G-2, G-3 and ORO of the FECOM had produced many research papers about that subject, examined feasibility study, and deliberated appropriate. Especially, debate on the Using A-bomb was accelerated after the Task Force Smith had defeated in Osan Battle in July 1950. G-3 Department of Army investigated using the nuclear weapons, but G-2 Department of Army took an opposite.

Meanwhile, regular studying about the using the A-bomb was progressed in the MacArthur's Command circle. Typically, ORO, FECOM took charge of that task. But the research of the ORO, FECOM showed reserve using the A-bomb in the Korean battlefield, because of ill preparation for aftereffect.

However, consent unanimously about the plan was arisen in the 8th Army and X Corps. They estimated that using the A-bomb was in effective.

But,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it was raised several points. The most important local problem is the identification and accurate location of suitable targets for atomic attack. Also, the ORO, FECOM study is largely predicted on the effect of atomic bombs in flat areas whereas the terrain of Korea is almost entirely hilly and mountainous. Moreover, it was raised possible enemy retaliation in kind or against Japan. In conclusion, using the A-bomb in the Korean battlefield was not pertinent.

On the one hand MacArthur strongly claimed the atomic bomb on the way of military situation, but on the other he rejected using the nuclear weapons in the battlefield. In other words, he was an advocate of A-bomb toward Washington Administration, and that was reflected by the unit's request under his direction.

MacArthur intention of using of A-bomb requested an all-out war against the China and turning of Truman Administration toward war policy, not ardently consideration about using the nuclear weapons.

Key Words : Douglas MacArthur, FECOM, ORO, Tactical Employment of A-Bomb, NSC-68, Charles L. Bolte, Air-burst type, Defense Research Committee, Ellis A. Johnson, Operations SHAKEDOWN